



광주여대 학생들이 13일 대학축제인 '2009 송강 공감체전' 개막식에서 2015 U대회 유치 플래카드와 수건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폐막식이 있는 14일에는 2천15개의 풍선을 날려 광주 유치를 기원할 예정이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캠퍼스에도 U대회 유치 열기



광주여대, 축제때 이틀간 유치기원 행사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가 결정되면, 모든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각오입니다. 광주여대인들의 소망이 빌기까지 전해져 오는 23일 '광주'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타전될 것입니다."

광주여대 대학축제인 '2009 송강 공감체전'을 '2015 U대회 유치와 광주여대의 유니버시아드'라는 주제로 13일부터 이틀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입장할 때도 U대회 유치 플래카드와 수건을 들고, 폐막식이 예정된 14일에는 2천15개의 유치 기원 풍선을 날리기로

했다.
임업운(23·미용과과 4)씨는 "광주시민 모두 바라는 U대회를 유치하는 데 광주여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대회 기간 중 미용과과는 참가 대학생들의 며리카락을 손질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회 유치를 자신했다.

광주여대 송강체전은 매년 열리는 광주여대의 큰 잔치로,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교수 및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체전 기간에는 밤야구, 피구, 여왕 닭싸움, 물풍선 받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학과 학생들이 참가 대학생 입장식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의료봉사를 하며, 경찰

법학과 학생들은 유명인 경호를 책임진다는 것.

이 학교 김재남 기획홍보처장은 "대회가 유치되면 각 학과별로 특색이 있고, 좋은 능력을 지닌 광주여대 학생들이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시민들이 모두 유치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회 유치를 자신했다.

광주여대 송강체전은 매년 열리는 광주여대의 큰 잔치로,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교수 및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체전 기간에는 밤야구, 피구, 여왕 닭싸움, 물풍선 받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석종태 45점...광주고 농구 4강

협회장기, 흥대부고 83-64 꺾어

광주고 농구팀이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4강에 진출했다.

광주고는 13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8강전에서 지난해 우승팀 서울흥대부고를 83-64(28-16, 20-17, 24-16, 11-15)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조 1위로 8강에 올랐던 광주고의 이날 승리의 주역은 바로 석종태(2년·센터)와 신재호(3년·ガード)였다.

신장 196cm의 석종태는 45 득점·14 리바운드·4 가로채기 등 공·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신재호도 23 득점·5 도움·1 가로채기의 선전을 펼쳤다.

이밖에 서기업(3년·포드·6 득점·5 리바운드·허경부(3년·가드·9득점·6 가로채기) 등도 팀 4강에 한 몫 했다.

광주고는 단대부고를 꺾고 4강에 오른 인천송도고와 14일 결승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조 1위로 8강에 올랐던 광주고의 이날 승리의 주역은 바로 석종태(2년·센터)와 신재호(3년·ガード)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민선 감격의 첫 승

강산배 드림투어 2차전 우승

이민선(27)이 한국여자프로골프 강산배 드림투어 2차전에서 우승했다.

또한 신재호도 23 득점·5 도움·1 가로채기의 선전을 펼쳤다.

이밖에 서기업(3년·포드·6 득점·5 리바운드·허경부(3년·가드·9득점·6 가로채기) 등도 팀 4강에 한 몫 했다.

광주고는 단대부고를 꺾고 4강에 오른 인천송도고와 14일 결승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조 1위로 8강에 올랐던 광주고의 이날 승리의 주역은 바로 석종태(2년·센터)와 신재호(3년·ガード)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프로 7년차 이민선은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12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순연되면서 남은 2개홀을 13일 치르면서 우승자가 가려졌다.

/연합뉴스

광주 이동현·동훈 형제 금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육상 2관왕 전남 윤진섭 '이지석 특별상' 수상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이틀째

장애학생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질주'가 여수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이틀째인 13일 광주와 전남은 본격적인 메달사냥에 나서면서 가슴 벅찬 흥분을 발휘하고 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수영에서도 금빛 역영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풍암고 이동현과 김민주가 남녀 자유형 50m S14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최희준(한평영화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최희준(한평영화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 7, 은 7, 동 4개를 기록 중이다. 전남도 금 3, 은 6, 동 6개를 더해 금 5, 은 7, 동 8개를 획득했다.

광주는 지역장에서 이동현·동훈(세광학교)

형제가 육상필드 원반던지기 F20과 포환던지기 F20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트랙 남자 100m T13에서는 김규동(세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육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대표 윤진섭(시각장애·육상·은광학교)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 윤진섭(은광학교)이 남자 200m T13, 박혜정(구례여중)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과 수영경기에서 금 5, 은 6, 동 2개를 추가해 총 금